



FIP-2014-0002 (통권 제201호, 2014. 07.01)

## 중국의 對韓 투자 매력과 시사점

ISSUE  
PAPER



## Contents

### < 요약 >

I. 검토배경 .....	1
II. 중국의 해외투자 및 대한투자 현황 .....	3
1. 중국 해외투자 추세 .....	3
2. 중국 對韓투자 현주소 .....	3
III.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유형 분류 및 사례 .....	6
1. 중국 해외투자 유형 분류 .....	6
2. 중국 해외투자 유형별 사례 .....	6
IV. 한국의 잠재적 투자유치 부문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	9
1.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유치 매력부문 .....	9
2. 중국투자 유치 저해요인 .....	10
V.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	14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아시아팀 오영경 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45    FAX : 02-6234-5290    E-mail : naya319@fki.or.kr



● ● ● 요약 ● ● ●

□ 검토배경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1~2012년 3.25~3.5%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 국면이 지속 중인데,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가 요구
- 지난 9년간 중국의 해외투자가 30.8배로 증가하며 세계 3대 해외투자국이 되었으나 對韓투자 규모는 낮아, 중국에 대한 對韓투자 유치 노력 확대가 필요
- 본보고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對韓투자 매력요소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함

□ 중국의 해외투자 및 對韓투자 현황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2003~2012년 연평균 46.3%씩 급증해 2012년 878억 달러를 기록하며 美·日에 이어 세계 3대 투자국으로 부상
- 중국의 對韓투자는 2003~2012년 연평균 22.6%씩 늘었으나, 중국의 총해외투자 중 對韓투자 비중은 동기간 5.4%에서 1.1%로 오히려 축소
  - 중국 대기업을 2005~2013년 해외에서 1억 달러 이상 대형투자한 실적도 對韓 투자사례다 금액기준 36위(0.6%)에 불과하는 등 중국의 對韓 대형투자가 저조
- 올해 7월 초 中 국가주석 訪韓을 앞두고 있는데, 역대 中 정상외 訪韓 시 경험 성과를 보면 '교역확대, 한중FTA' 중심으로, 對韓 투자내용은 찾기 어려움

□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유형 분류 및 사례

- 중국의 해외투자 유형을 목적에 따라 자원·에너지 접근성 확보, 기술·브랜드·노하우 확보, 신시장 개척, 무역장벽 우회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시진핑 中 주석의 해외순방 경험성과 중 '투자' 관련으로 추려 투자성격을 파악해보면, 아프리카·중남미·중양아 등 신흥국에 대해 자원·에너지 확보 목적, 유럽 지역은 기술·브랜드 확보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룸

〈 중국 해외투자 목적별 분류(시진핑 해외순방 경험성과 중심으로) 〉

신시장 개척	기술, 브랜드, 노하우 확보
10(인니)      15(카자흐)	4, 5(독일) · 6(벨기에)      8(네) · 2(프)
19(카리브)      21(멕시코)	1(프)      7(네)
18(투르크)      24(남아공)	3(독일)
14, 16(카자흐)	
17(우즈벡)      11(인니)	
자원, 에너지 접근성	무역장벽 우회, 제거

● ● ● 요약 ● ● ●

□ 한국의 잠재적 투자유치 부문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유치 매력

-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자원·에너지 접근성, 신시장 확보 목적의 투자유치는 어려움
- 기술·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고, 한국 내 사업으로 중국기업 생산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확보 등 기술·브랜드 목적의 중국투자 유치에 적합
- 우리나라는 FTA허브로 FTA 경제영토\*가 56.3%(2013년)에 달하며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을 포함하고 있어 무역장벽 우회 목적의 투자유치에 유리

〈 우리나라 중국투자 유치 적합분야 〉

자원, 에너지 접근성(X)	기술, 브랜드, 노하우 확보(★)
신시장 개척(내수경쟁심화)(▲)	무역장벽 우회(★)

○ 중국투자 유치 저해 요인

- 중국 투자수요별로 맞춤형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데, 한국의 고생산비, 고물가 등 비용경쟁력을 감안 시 투자매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는 필수
- 인·허가, 면허 등 제도가 시장진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국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
-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고 노조가 강경해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인식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 중국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중국인 전용 헬스케어센터 프로젝트를 선제안, 추진
- 한중 정부 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투자자에 대한 인력규제 완화 등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 한국이 FTA허브로 무역장벽 우회에 최적, 중국기업 제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부가 및 한국기업 기술·노하우 활용으로 자국시장(中)을 공략하는 투자모델 등 對韓투자 메리트 세일즈 강화

○ 中자본유치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정부기관 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일관성 유지로 투자 불확실성을 낮춰, 결심한 투자가 적극 투자하는 환경조성

## I. 검토 배경

- 중국의 對韓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향후 투자 확대가능성도 낮다는 인식
  - 중국의 對韓투자 규모는 한국의 對中투자 대비 1/9 수준으로 저조
    - \* 투자규모(산업부, 2012년) : 한 → 중 65억 달러, 중 → 한 7.3억 달러
  - 우리나라는 자원, 에너지도 없고 인건비, 생산비용 등 비용측면에서 중국 대비 열위로 우리나라에 중국 투자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
- 3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對韓투자 유치 노력을 확대할 필요
  - 세계 각국은 저성장 타개수단으로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중이며, 특히 세계 1·2대 해외투자국인 미국, 일본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에 전력투구
    - 美 : 2011년 연방단위 최초 외자유치 프로그램인 ‘Select USA’을 설치·운영
    - 日 : 2013년 대도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완화·세제우대 등으로 국내외 인력·자본을 유치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하는 계획발표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ect U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Select USA Investment Summit 2013’에 참석, 연방정부 차원으로는 역대 처음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li> <li>* Select USA 역할 :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신규사업진출, 국내 기업·입지, 정부자원 접근·지원, 규제문제해결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美대사가 외자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 관여하도록 하고, 연방차원에서 주·지역 투자유치 정책지원 등</li> </ul> </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국가전략특구 지정(20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지역을 분산 지원하던 既특구제도를 탈피, 대도시를 지정하되 유형 다양화</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지역</th> <th>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도쿄도</td> <td>-해외 의사면허보유자의 국내 진료행위 인정, -해외일류유치원 및 초중고 유치 -카지노·호텔 등 복합화한 통합리조트, -도시계획 용적률, 용도변경 규제완화</td> </tr> <tr> <td>오사카부·시</td> <td>-첨단산업 육성 혁신특구 설치, 법인세 대폭인하, -연구기관 등 기부공제 확대</td> </tr> <tr> <td>아이치현</td> <td>-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특구 설치, 법인세 대폭인하, -고급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td> </tr> </tbody> </table> <p>자료 : 제6차 산업경쟁력회의 자료</p>	지역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예시	도쿄도	-해외 의사면허보유자의 국내 진료행위 인정, -해외일류유치원 및 초중고 유치 -카지노·호텔 등 복합화한 통합리조트, -도시계획 용적률, 용도변경 규제완화	오사카부·시	-첨단산업 육성 혁신특구 설치, 법인세 대폭인하, -연구기관 등 기부공제 확대	아이치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특구 설치, 법인세 대폭인하, -고급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지역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예시								
도쿄도	-해외 의사면허보유자의 국내 진료행위 인정, -해외일류유치원 및 초중고 유치 -카지노·호텔 등 복합화한 통합리조트, -도시계획 용적률, 용도변경 규제완화								
오사카부·시	-첨단산업 육성 혁신특구 설치, 법인세 대폭인하, -연구기관 등 기부공제 확대								
아이치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특구 설치, 법인세 대폭인하, -고급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출처 : AT Kearney, 2014 FDI confidence Index, 2014.6/GRI, 아베노믹스 성패의 열쇠, 2013.8.

- 한국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1~2012년 3.25~3.5%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국면이 지속 중인데, 투자유치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할 필요
- 중국은 지난 9년 동안 해외투자를 30.8배로 늘리며 세계 3대 해외투자 국가로 부상하였고 앞으로도 해외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전망이므로, 중국을 타겟으로 對韓투자 유치 가능성 등의 검토가 요구됨



- 본보고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對韓투자 매력요소 및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함
  - 2장 : 중국의 해외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유치 현주소를 점검
  - 3장 : 중국의 해외투자를 투자 목적별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투자사례를 검토함으로써 對韓 투자유치 타겟인 중국투자의 성격, 스타일을 파악
  - 4장 :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을 세일즈할 만한 부문을 알아보는 한편 중국의 국내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
  - 5장 : 중국의 對韓투자 매력을 반영하되 저해요소를 개선하는 개선안 제시

## II. 중국의 해외투자 및 대한투자 현황

### 1. 중국 해외투자 추세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2003~2012년 연평균 46.3%씩 급증해 2012년 878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투자국으로 부상
  -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해외진출 장려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중국의 對韓 투자가 급증, 2006년부터 해외 경험단지 건설정책을 시행하며 가속화
    - \* 중국 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저우 추취(走出去)’ 정책을 공식 포함, 2006년 ‘해외경제협력단지’ 건설 방침을 공포
  - 중국의 해외투자규모는 2003년 28.5억 달러에서 2012년 878.0억 달러로 늘어나 지난 9년간 총 30.8배 급증, 연간성장률로 환산 시 46.3%씩 급성장

#### 〈 중국의 총해외투자 규모 〉

(단위 : 억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ODI	28.5	55.0	122.6	176.3	265.1	559.1	565.3	688.1	746.5	878.0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대외직접투자공보(비금융, 순투자), 2003~2012년 각 년도, 2003년 이전 자료 없음

- 2012년 국가별 해외투자규모를 살펴보면, 미국 3,289억 달러, 일본 1,226억 달러, 중국 842억 달러 순\*으로 중국이 세계 3대 투자국에 해당

\* 출처 : Inward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annual, 2012, UNCTAD

### 2. 중국 對韓투자 현주소

- 중국의 對韓투자는 2003~2012년 연평균 22.6%씩 늘었으나, 중국의 총 해외투자 중 對韓투자 비중은 동기간 5.4%에서 1.1%로 오히려 축소
  - 중국의 對韓투자는 2003~2012년 1.5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총 6.3배 늘어난 반면 중국의 총해외투자 대비 對韓투자 비중은 5.4%에서 1.1%로 하락

#### 〈 중국의 대한 순투자규모(비금융) 〉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한투자	1.5	0.4	5.9	0.3	0.6	1.0	2.7	-7.2	3.4	9.4
대한투자/총ODI	5.4%	0.7%	4.8%	0.2%	0.2%	0.2%	0.5%	-1.0%	0.5%	1.1%

자료 : 중국 상무부, 중국대외직접투자공보(비금융, 순투자), 2003~2012년 각 년도

-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 중국이 한국의 최대투자처이자 한국이 중국의 4대 외국인투자자(2012년, 65억 달러)임을 감안 시 초라한 성적
- 중국 대기업이 2005~2013년 해외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한 실적 중심으로 살펴보면, 對韓투자 사례는 금액기준 36위(0.6%)에 불과하여 중국의 對韓 대형투자가 저조하며 투자부문도 부동산에 집중
- 투자 부문별로 보면 對韓 대형투자 5건 중 3건이 부동산 투자\*(제주도, 미단시티), 에너지·기술이 각각 1건씩으로, 부동산 외의 투자가 저조

〈 2005~2013년 중국의 국가별 대형투자(1억 달러 이상) 〉

(단위 : 억 달러, %)

	국가명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국가명	건수	금액	비중 (금액)
1	미국	78	599.0	12.5%	11	아르헨티나	9	94.9	2.0%
2	호주	61	572.5	12.0%	12	프랑스	9	92.3	1.9%
3	캐나다	30	376.5	7.9%	13	남아프리카	10	88.4	1.8%
4	브라질	26	291.8	6.1%	14	싱가포르	11	85.3	1.8%
5	영국	23	185.3	3.9%	15	스위스	4	81.7	1.7%
6	러시아	24	171.5	3.6%	16	나이지리아	5	75.5	1.6%
7	카자흐스탄	7	153.2	3.2%	17	Guinea	2	73.0	1.5%
8	인도네시아	21	120.2	2.5%	18	DR콩고	6	62.7	1.3%
9	페루	9	106.0	2.2%	19	이란	3	60.2	1.3%
10	이라크	4	101.0	2.1%	20	말레이시아	11	59.2	1.2%
					<b>36</b>	<b>한국</b>	<b>5</b>	<b>31.0</b>	<b>0.6%</b>

출처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2014.  
 자료의 한계 : 실제 모든 투자내용을 정확하게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

〈 중국의 對韓 대형투자 사례(1억 달러 이상) 〉

(단위 : 억 달러, %)

날짜	Investor	금액	지분	Partner/Target	부문(세부부문)
2010.5	Tianyu Group	990달러		리포인천개발	부동산(자산)
2010.9	Shanda Games	100달러	100%	아이덴티티 게임	기술
2012.10	Shanghai Greenland	900달러			부동산(자산)
2013.4	China National Aviation Fuel	130달러	26%		에너지(오일)
2013.11	Shanghai Greenland	980달러			부동산(자산)

출처 : 상동

- 올해 7월 초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역대 중국 정상외 한국 방문 시 경제협력 내용을 살펴봐도 對韓 투자내용은 찾기 어려움
- 한편, 역대 한중정상외교 시 경제협력을 살펴보면 주로 ‘교역확대, 한중 FTA’ 등으로, 對韓투자 유치보다는 양국무역이 주를 이룸

〈 역대 한중 정상외교 주요성과 〉

기간, 장소	주요내용 및 성과
2013.6. 박근혜 대통령 방중*	(경제)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 2015년까지 무역액 3천 억 달러,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일 3년 연장 (경제외)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전략적동반자관계 내실화 행동지침, 환경·원자력·재난구조 등 지역·세계 문제해결 협력강화
2012.1. 이명박 대통령 방중*	(경제) 한중 FTA 협상 개시 사전과정의 조속한 진행,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 등에서 호혜적 협력 지속 (경제외)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양국 외교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하나의 중국(대만) 지지, 韓국제행사(핵안보정상회의, 엑스포) 유치 지지
2008.8. 후진타오 주석 방한*	(경제) 2010년 무역액 2천 억 달러, 한중 FTA 추진 검토, 양호한 상호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절약 협력 MoU, 사막화방지 기술협력 MoU (경제외) 정상교류 확대, 외교부·국방 고위급대화 활성화, 중국방문(2010)·한국방문(2012)의 해 지정, 남북통일 지지, 사증편리화 조치 검토 등
2008.5. 이명박 대통령 방중*	(경제) 한중 FTA 추진 연구 작업, 무역불균형 시정노력, 양국 경제 통상협력에 관한 중장기보고서 보안, 환경·물류·통신·원전 호혜 협력 (경제외) 전면적 협력동반자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청소년교류 확대, 사증편리화 조치, 한중 고등교육 학위 상호인정 MoU 등
2005.11. 후진타오 주석 방한	(경제) 2012년 무역액 2천 억 달러,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부여,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철강, IT 등 17개 분야서 협력 강화 등 (경제외) 북핵문제 공조, 한중교류의 해(2007) 지정, 식품 위생·검역(김치 분쟁) 관련 대화로 협상,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 등
2003.7. 노무현 대통령 방중	(경제)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향 연구공동팀 구성, 중국서부대개발·베이징~상하이고속철·차세대 IT 등 협력, 한중 BIT 개정, 한중 환경보호 산업투자포럼 공동개최 등 (경제외) 남북한 대화 및 경제협력지지, 청두 한국총영사관 설치, 하나의 중국(대만)지지, APEC정상회의(2005, 서울) 개최협력, 양국 교류·대화 활성화

표의 정상외교는 한국 또는 중국에서 가진 국민 정상외교만을 대상(미니회담·G20정상회담차 회담 등 제외)  
\*국민방문

### Ⅲ. 중국자본의 해외투자 유형 분류 및 사례

#### 1. 중국 해외투자 유형 분류

- 중국의 해외투자 유형을 목적에 따라 자원·에너지 접근성 확보, 기술·브랜드·노하우 확보, 신시장 개척, 무역장벽 우회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위 유형은 각각 원부자재 안정적 수급, 자국기업 경쟁력 향상, 자국시장 경쟁압력 증대로 신시장 개척, 해외시장 진출 관련 무역장벽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함
- \*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 제고’ 목적 투자 고려 가능(이학노 외, 중국자본 유치전략, 2010)

#### 〈 중국 해외투자 목적별 분류 〉

분류	상세 내용
자원, 에너지 접근성	중국은 자국 경제 급성장 지속을 위해 해외 자원,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 실제 중국은 20년 전 동아시아 최대 원유수출국에서 2008년 3대 수입국으로 전환.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자원 수요도 폭발적으로 급증해 자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
기술, 브랜드, 노하우 확보	발전된 기술, 제조 프로세스, 경영노하우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 선진국 투자 시 M&A를 많이 활용. 주로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만 재무사정이 나쁜 기업을 인수해 시장진출 교두보로 삼고 마케팅 스킬 습득. * (예) Lenovo-IBM : 2005년 레노보가 IBM의 PC부문을 인수해 국제 마케팅·광고 관련 관리·비즈니스 경험을 획득하고 세계적 브랜드를 확보
신시장 개척 (내수경쟁심화)	중국 내수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 또는 미개척 시장(미개발국)에서의 시장선점우위를 누리기 위해 해외에서 신시장 개척 노력을 확대
무역장벽 우회, 완화	중국산제품에 대한 외국의 쿼타, 관세, 기타 장벽을 피하기 위한 현지투자. 북미, 유럽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을 줄이려는 해외투자 등 진행. * (예) 중국 TV제조사 TCL은 독일 슈나이더를 인수한 후 유럽생산을 유지함으로써 중국 TV수입에 대한 유럽의 쿼터를 피함.

출처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Going out : An overview of China's Outward FDI 2011.3. 요약

#### 2. 중국 해외투자 유형별 사례

-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해외순방 경험성과 중 ‘투자’ 관련 성과를 추려 경제발전 수준, 강점 등 특성에 따라 지역별 투자 성격을 파악해볼 수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 개도국, 중진국, 선진국을 두루 순방하는 동안 투자, 무역, 금융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안

〈 중국 시진핑 주석 국빈방문 (경제부문) 주요성과 〉

기간, 장소	주요내용 및 성과
5차/ 2014.3. 유럽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프랑스) ① 동평(東風)자동차의 PSA푸조시트로앵의 지분 14%(11억 유로) 인수, ② 중국광핵그룹과-프랑스전력, 원자력 협력 체결, 中-佛이 함께 영국 신규 원전건설사업에 지분참여하기로 약속 (독일) ③ 중국인민은행-독일연방은행 프랑크푸르트에 위안화 청산·결제기관 설립 MOU, ④ 폴크스바겐-상하이자동차 연료전지 기술협력계약 체결, 향후 중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상용화를 가속화, ⑤ 지멘스-화능국제 전력-상해전력 간 가스터빈, 전력공장 협력 MoU 체결 (벨기에) ⑥ 中우한취싱국제과기투자가 루벵라네브대학 과학기술단지에 첨단과학기술 인큐베이터단지 조성(중국개발은행, 1억5천만 유로 투자지원) (네덜란드) ⑦ 중량그룹(최대식품사)은 니데라(곡물거래) 지분 51% 인수, ⑧ 이리그룹-바헤닝엔데 연구소, 식품안전 보장시스템 구축 협력 계약체결
4차/ 2013.10. 동남아 (인니, 말련)	(인니) ⑨ 2015년 교역액 800억 달러, ⑩ 서부자바에 9만ha 댐건설 참여, ⑪ 300억 달러 광산개발/항구건설계약(23건), ⑫ 16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말련) ⑬ 2017년 교역액 1천 600억 달러 달성
3차/ 2013.9. 중양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 ⑭ CNPC의 카샤간유전 지분 매입확정(50억 달러), ⑮ 카자흐스탄의 산업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개발은행·수출입은행의 80억 달러 차관, ⑯ 카자흐 내 정유공장 건설 등 약 300억 달러(20여 개) 협정 체결 (우즈베크) ⑰ 석유·가스·광물, 발전, 금융, 첨단과학 등에 150억 달러 투자협정 (투르크멘) ⑱ 투르크멘-우즈베크-타직-키르기스-중국으로 연결되는 신규가스관건설 계획, 2020년까지 연간 천연가스 거래량을 650억m <sup>3</sup> 까지 확대약속
2차/ 2013.5~6. 중남미 (코스타, 멕시코, 미국 등)	(카리브해 8개국 및 코스타리카) ⑲ 총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 (멕시코) ⑳ 국영석유회사에 차관 10억 달러, ㉑ 제품수입 10억 달러 이상 증대
1차/ 2013.3. 러시아·아프리카 (러시아, 탄자니아, 남아공, 콩고)	(아프리카) 2015년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2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 - (탄자니아) ㉒ 바가모요항 종합개발 프로젝트 MoU(총 100억 달러 규모) - (남아공) ㉓ 트랜스넛(물류공기업)에 50억 달러의 차관 제공 - (콩고) ㉔ 브라자빌(수도)~푸앵트누아르 고속도로 건설(약 500km) 등

선정기준 : 시진핑 국빈방문 시 경제협력 성과 중 중국의 해외투자 중심으로 선별. 순방국 중 중국의 순방국 투자 경제협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타 경제협력 성과를 포함

〈 [참고] FDI 범위(외국인투자촉진법) 〉

- ①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기업경영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또는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 ② 해외 모기업과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의 절차에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기존 주식 등의 취득을 투자, M&A에 의한 주식 취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

- 위 경험성과를 ‘투자’에 초점 맞추어 분류해보면, 아프리카·중남미·중양아 등 신흥국에 대해 자원·에너지 확보 목적의 투자, 유럽 지역은 기술·브랜드 확보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해외투자 목적별 분류 〉

신시장 개척	기술, 브랜드, 노하우 확보
10(인니) 15(카자흐)	4, 5(독일) 6(벨기에) 8(네)
19(카리브) 21(멕시코)	2(프) 1(프) 7(네)
18(투르크) 24(남아공)	3(독일)
14, 16(카자흐)	
17(우즈벡) 11(인니)	
자원, 에너지 접근성	무역장벽 우회, 제거

※ 유의

- ①②⑬ : 무역거래 및 기타로 ‘투자’ 거래가 아니므로 위 표에서 제외
- ②③④ : 일단, 위 표에서 신시장 개척으로 분류하였으나 신시장 개척 등 특정 경제적 목적 달성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이학노 외 2010)라는 정치, 외교적 성격이 높음
- ③ : “위안화가 아직 자유로이 거래되지 않으나 아시아 외의 지역에 거래허브를 세움으로써 중국은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으며 중국계 은행의 독일 자회사가 청산은행으로 고려 대상”(로이터, 2014.3.). 위 이유로 동 경제협력을 대유럽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우회, 제거 투자에 포함. 한편,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에 의지가 높고 독일정부는 이를 지원해 자국 금융산업 지원에 관심”(차이나데일리, 2013. 3.) 감안 시 ‘위안화 세계화’라는 ‘정치, 외교적 성격’도 높음

## IV. 한국의 잠재적 투자유치 부문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 1.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유치 매력부문

-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자원·에너지, 신시장 목적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기술·브랜드, 무역장벽 우회 목적의 투자유치 가능성은 충분
-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자원·에너지 접근성, 신시장 확보 목적의 투자유치는 어려움
  - 우리나라의 글로벌 완제품 대기업을 타겟으로 대형거래처와 확보 및 관계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도 일정부분 가능할 것

#### 〈 우리나라 중국투자 유치 적합분야 〉

자원, 에너지 접근성(X)	기술, 브랜드, 노하우 확보(★)
신시장 개척(내수경쟁심화)(▲)	무역장벽 우회(★)

- 기술·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고, 한국 내 사업으로 중국기업 생산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확보 등 기술·브랜드 목적의 中투자 유치에 적합
  - 앞서 II-2에서 유럽 선진국가의 물가, 생산요소비용 등이 높지만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Made in korea’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중국 1일 생활권으로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자국민(中) 대상 고급서비스를 제공해 ‘Served in korea’ 구현 등 ‘Korea’ 브랜드로 자국(中)에 세일즈 가능
- 우리나라는 FTA허브로 FTA 경제영토\*가 56.3%(2013년)에 달하며 미국, EU 등 거대·선진 경제권을 포함하고 있어 무역장벽 우회 목적의 투자유치에 유리
  - \*FTA 경제영토 : 세계 GDP 대비 FTA 협정체결국 GDP 합계
  - 2007년 한국 국토부 기업도시 지정계획 및 중국 상무부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지정계획에 따라 전남 무안에 ‘한중미래도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중국 측은 개발목적으로 FTA 관세혜택, 무역장벽 우회를 언급

#### 〈 중국의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목적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OECD 및 FTA회원국으로 유럽, 미국에 수출 시 수출쿼터가 필요 없음</li> <li>■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무역장벽을 설치한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 회피 가능</li> <li>■ 중국기업의 혁신능력 및 상품경쟁력 향상</li> <li>■ 중국기업이 국제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양호한 기회 제공 등</li> </ul> |
|--|

출처 : 산동성상무처, (GRI, 중국자본의 경기도 유입특성 및 활성화 방안, 2013.6. 재인용)



## 2. 중국투자 유치 저해요인

※ 선정 :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및 CCPIT한국사무소 간담, 전경련 간담(기업도시·비공개)

### □ 중국 투자수요별로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음

- 2007년 한중 정부 간 추진한 ‘한중미래도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도시특별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뚜렷한 지원책이 없었고 중국투자자가 강력 요청한 인센티브(외국인인력고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
-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생산비용, 고물가 등 비용경쟁력이 낮은 편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투자국 기업에 제공할 필요

#### 전남 무안 ‘한중미래도시’ 프로젝트(2007년)

- 韓 국토부 기업도시 지정계획 및 中 상무부 해외경제무역협작구 지정계획에 따라 추진
  - \* 中 상무부는 2006년 해외경협단지 건설방침을 공포. 2007년 말 총 12개 단지를 허가 및 개발 착수. 경협단지 지정 시 中 중앙정부가 자국투자자를 대상으로 2~3억 위안 재정 지원 제공, 중장기적으로 20억 위안까지 대출
- 12개 단지에 포함된 무안 프로젝트는 유일한 선진국(OECD) 소재 단지로 의미가 큼
  - \* 유치업종 : IT·BT산업, R&D산업, 물류산업
  - \* 한 : 중 출자비율 = 51% : 49%
  - \* 개발계획 : 기업도시 내 1,773m<sup>2</sup> 규모의 산업단지를 설립해 55,000여 명 인구 유입
- 당시 중국투자자는 해당지역에 대한 외국인인력 고용가능비율(약 20% 내외)의 탄력적 운용 등을 투자결정 핵심규제로 지목하며 강력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음
  - \* 中 산둥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엔 자오완 부청장, 무안투자 관련 2007년 訪韓 시 “中근로자를 한국에 많이 데려올 수 있게 韓 정부가 해외근로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中의 무안 투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규제완화 촉구

출처: KITA,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2008. / 전북발전연구원, 새만금개발을 위한 중화자본유치 기초연구, 2011.

#### 〈 외국인인력 고용정책 〉

- 영위업종·고용규모 등에 따라 허용비율이 상이하나, 고용허가제 및 전문인력 허용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100인 이상 고용 제조기업 기준)은 총 인력의 약 20%를 초과하여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음
  - \* 비전문인력 : 일반고용(E-9), 특례고용(H-2) 허가제

#### 〈 2014년 제조업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및 신규고용 한도 〉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5명 이하	50~500%	3명 이하
11명 이상 50명 이하	10명 이하	20~90%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이하	15~29%	4명 이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이하	13~20%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이하	13~17%	5명 이하
201명 이상 300명 미만	30명 이하	10~15%	
301명 이상	40명 이하	~13%	

\* 전문인력(E-7) : 20%까지 외국인고용 허용. 단, 첨단산업분야 등은 주무부처(kotra, KITA)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총 근로자의 50% 이내에서 추가고용 허용

- 반면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후 중국인투자자가 동제도의 인센티브에 반응해 對韓 부동산투자가 급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투자수요를 파악해 인센티브를 마련 시 중국투자 유치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임
  - \* 특정지역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장단기 거주(영주권자격 등) 자격 부여. 제주도, 부산시, 강원도, 전남도, 인천시 5곳 지자체 시행 중
  - \* 중국의 전체 對韓투자 중 부동산·임대업 투자 비중 및 건수 (출처 : 산업부) : (2010) 1.1%, 4건 → (2011) 44.4%, 17건 → (2012) 38.9%, 24건 → (2013) 44.6%, 53건
  - \* 부동산투자비자발급현황(2013.4월, F-2-8비자) : 총 184인 중 172인(93.5%)이 중국출신 (출처 : 한국관광공사, '투자이민제도 국가별 사례비교 및 시사점' 재인용)

□ 인·허가, 면허 등 제도가 시장진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국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

- 중국의 對韓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이 2009~2013년 26%로 낮아, 중국투자자 중 투자실행 규모를 축소 또는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위 비율(26%)은 동기간 타국의 투자 실행비율 평균인 57%의 절반 수준에 불과
  - 1962~2013년 중국의 대한투자 신고액 대비 실행비율 평균은 52%로 오히려 양호
  - \* 2009년 이전 자료는 도착액 비공개로 비율 산출 불가

〈 중국의 對韓 FDI 신고액 대비 실제투자액(도착액) 비율 비교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2013*	1962-2013*
미주지역	30%	17%	29%	43%	48%	356%	48%
미국	32%	16%	18%	33%	43%	31%	45%
캐나다	6%	3%	50%	51%	79%	39%	37%
아주지역	39%	30%	61%	63%	77%	54%	62%
일본	40%	69%	62%	84%	107%	76%	74%
<b>중국</b>	<b>17%</b>	<b>23%</b>	<b>16%</b>	<b>26%</b>	<b>44%</b>	<b>26%</b>	<b>52%</b>
대만	100%	25%	291%	109%	22%	42%	34%
싱가포르	70%	41%	72%	70%	102%	68%	62%
말련	5%	70%	95%	59%	98%	63%	85%
EU	86%	87%	54%	109%	73%	78%	83%
기타지역	34%	43%	28%	101%	74%	52%	62%
<b>전체</b>	<b>59%</b>	<b>41%</b>	<b>48%</b>	<b>66%</b>	<b>67%</b>	<b>57%</b>	<b>64%</b>

출처 : 산업부 외국인투자동향(2009년 이전자료는 도착액 비공개)  
 비율 : 당해연도 도착액/당해연도 신고액(신고 대비 투자비율 자체 산출)

- 우리나라가 개방성이 부족하여 중국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축소 또는 투자속도 지연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

**전라남도 진도 수산업 투자, 중국 A그룹\***

- \* 中최대 민영수산업그룹으로서, 미국일본 등에 해외지사 17개 및 중국 16개성 260개 대리점을 보유. 2007년 다보스 ‘글로벌성장기업공동체’ 창시회원, 중국 제1대 ‘흥어 부민(어업을 부흥시켜 인민을 부유하게 만들)’ 기업으로 선정
  - 사업모델 : 어민-생산(해삼 배양), A그룹-기술전수·종묘제공·어민생산물 구입하는 역할 분담
  - \* 2010.10. 진도군-A그룹 MoU협약 : 해삼·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산업화 공동이용협력, 진도해역에서 생산된 청정수산물 가공·유통·수출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투자협력
  - 투자애로 : 중국에 수출·판매하는 사업모델이지만 어업단체·협회 중심으로 A그룹이 향후 국내 내수시장 진출 또는 밀거래 실행 시 시장질서가 혼탁해지고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 이로 인하여 2013년 10월에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음. A그룹은 세무서에 전복 국내유통 포기신청서를 제출(적발 시 세금추징) 하였으나 전복생산 허가 전망은 불투명
  - \* 중국은 해삼 최대 수요처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해삼의 90%가 중국에서 소비
  - \* 전복의 경우, A그룹은 해남세무서에 국내유통 포기신청서(적발 시 세금추징)를 제출한 상태
  - A그룹은 2010년 총 2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투자 진행속도를 크게 늦춘 상황(3년이 넘었으나 집행률 10% 미달)
  - \* 2013~2016년 해삼종묘배양장·냉동창고·가공시설 등에 총 230억 원 투자하기로 함
- 출처 : 주한중국대사관 및 A그룹 인터뷰, 언론보도, 진도군홈페이지

□ 경직적 노사관계 및 인력이동 제한

-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고 노조가 강경해 인력관리가 어렵다고 지적
  - WEF에 따르면 노사관계, 고용·임금 경직성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148개국 중 78위로 하위권이며, 우리나라보다 대형 중국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비교 대상 국가와 견주어 보아도 효율성이 낮은 상황
  - \* 비교국가 선정기준 : II-2. 두 번째 표에서 중국이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중국투자 유치 상위국가 중 ‘자원·에너지 부국’ 성격이 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대중 투자유치 경쟁 시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부적합한 국가를 제외
  - 특히 세부항목 중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데 이와 관련 실제 중국기업들이 對韓투자 시 노사협력에 대해 애로를 많이 호소

〈 노동시장 효율성 국제비교 〉

평가 항목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	78위	4위	5위	71위	1위	2위
- 노사 간 협력	132위	42위	26위	135위	2위	1위
- 불요불급한 임금지급	120위	1위	26위	54위	6위	40위
- 고용 및 해고 관행	108위	9위	27위	144위	3위	2위
- 임금결정의 유연성	61위	29위	12위	75위	5위	17위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 : 노사 간 협력, 정리해고 비용 등 총 8개 항목의 종합순위, 148개국 대상  
출처 :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

- 우리나라 노동조합 문화에 대해 ‘투쟁, 적대성, 강경하다’라는 인식이 높음

**한국노조에 대한 중국의 인식 (중국 상무부)**

- “노조와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부분 발췌)
- “노조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듣고, 임금, 근무시간, 업무환경, 고용조건 등 문제를 가지고 파업, 집회 및 회사와 협상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자 할 수 있다. 굉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 “한국 노조 운영의 눈에 띄는 특징은 투쟁성과 적대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매년 ‘춘두(봄에 하는 노조)’와 ‘추두(가을에 하는 노조)’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사 측에 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며 노조의 힘을 과시한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파업기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 “노사분쟁이 있을 경우, 노조가 파업하는 것이 꼭 회사 측에 불만 때문만은 아니다. 노조의 임원으로써, 파업을 통해 어용노조가 아닌 강경함을 나타내려고 한다.”

출처 : 중국 상무부 발간 대외투자협작 지침서 2013 - 한국편, 발췌

○ 까다로운 비자 취득·연장 요건 등도 자국민력 진입 제한요소로 작용

**중국인노동자 비자 관련 애로**

- CCPIT, “재한 중국기업 인력의 비자취득 또는 연장에 어려움이 많아”
- 응답기업 중 28%가 비자발급 또는 연장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 \* 설문기간, 대상 등 : CCPIT한국사무소가 2012.10. 재한중국기업 대상으로 조사, 51개사 응답(응답기업의 45%가 연매출 3천 만 달러 초과. 5천 만 달러 초과 기업도 31%)

**< 비자취득 관련 주요 애로 >**

-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수석대표, 회사 총책임자 제외 일반 파견직원은 D7, D8 취득(유효기간 1~2년)이 어려워 유효기간이 3~6개월로 짧은 C3 비자를 취득
- 비자심사기간이 약 3주로 오래 걸림, 비자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년으로 짧음
- 회사의 경영부진은 D8 비자 연장 시 거부되는 근거가 됨
- D7 비자 연장 시 개인납세증명서를 제출
-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루 소요(대기시간 포함)
  - \* D8 자격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분야에 필수 전문인력 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벤처기업 설립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
  - \* D7 자격 : 외국 공공기관, 단체,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 C3 자격 : 상용활동(단기방문·시장조사·상담·계약 등), 관광, 요양 등 90일 이하 체류

출처 : CCPIT한국사무소, 2012.10. 설문조사 시행결과

## V.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 중국의 對韓투자에 대해 관심분야별로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투자자별 수요맞춤형으로 투자애로 발굴, 해소 및 인센티브 마련
  - 최근 중국은 한국의 금융, 관광·부동산, 신재생에너지, IT융합 분야에 관심

### 중국기업들이 한국투자에 주목하는 주요 분야

- ① 증권·보험 : 한국 내 증권업 직접 진출 희망, 보험은 국내 유력보험사 인수 타진
- ② 관광 및 부동산개발 : 서해안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관광단지, 지역개발프로젝트 개발과정에 직접참여 또는 운영권자로서 참여
- ③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글로벌 중국기업들이 한국시장 직접 진출에 관심
- ④ IT융합산업 : 한국의 우수한 IT기술에 관심이 높음

출처 : ①~③ 지식경제부 2010.5. , ④ kotra 2012.8. 중국기업 대상 설문


-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중국인 전용 헬스케어센터 프로젝트를 선제안, 추진
  - \* 보건복지부(2013)에 따르면 작년 국내진료 외국인환자 191개국 21만 1,218명(전년 대비 32.5% 증가)을 기록, 이중 중국인 환자 5만 6,075명으로 26.5%를 차지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85.6%, 주방문병원은 성형외과·내과·피부과)
  - 중국의 대규모 의료관광 투자수요에 대해 사업수요를 선별, 시범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격진료,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관련 규제 등을 완화

### 중국의 의료관광투자 활성화 방안

- ① 원격진료 허용범위 확대
  - 현황 : 현행법상 원격진료·조제는 의료인-의료인간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간은 금지되어 해외의료관광객 원격진료를 통한 사전상담, 사후검진서비스 등 서비스제공이 제한
  - 개선방향 : 의사 對 의사간 원격진료만 허용 → 의사 對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약국에서만 처방조제약조제·판매 가능 → 원격 조제·판매·배송 등 허용
- ②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제한적 허용
  - 현황 : 병원의료인이 내국인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고급서비스 제공에 한계
    - \* 외국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의료관련 연구, 교육, 봉사로 한정
    - \* 의료관광 선진국 싱가포르는 의학위원회(SMC) 인정 의과대학 졸업, 의사시험 통과, 의사수련, 영어시험 통과 전제로 외국인 근무를 1, 2년 단위로 허용
  - 개선방향 : 일정수준에 달한 외국자격소지 의료인에 대해 1, 2년 등 단기 고용 허용

출처 : 전경련, 2013.1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발췌, 요약)

- 한중 정부 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제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전남 무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 이번에도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 인력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당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차원 사전대응이 필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규모 :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25.8km<sup>2</sup> 규모</li> <li>- 기능 : 산업기능 중심으로 R&amp;D, 교육, 주거, 상업 등이 조화된 융복합 도시</li> <li>- 추진방식(안) : 기업주도, 정부지원의 민관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개발청과 中 상무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조사·연구, 기본구상, 양국기업 간 합작법인을 구성해 공동단지 조성. 합작법인이 공유수면매립, 단지조성, 기업유치, 분양 전 과정 수행</li> </ul> </li> <li>- 입주산업 :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 등</li> </ul>	

- 첨단·환경산업 등 中신기술 투자수요에 맞춰 기술협력의제 발굴, 선제안
  - 중국기업은 IT·첨단산업 관련 핵심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역량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서 한·중기업 합작을 통해 경쟁력을 증대 가능
  - 中정부가 12.5규획에서 역점을 둔 환경산업에서 한·중 간 에너지 저감기술 및 미래 신에너지 공동개발, 관련 기술 상호인증제 도입, 同기술 국제표준화 등 추진
    -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중국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에너지제약 증대 및 오염심화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중국 7대 전략산업 중에서 가장 강조

□ 한국이 FTA선진국으로 무역장벽 우회에 최적, 중국기업 제품·서비스에 ‘Korea 브랜드’ 부가로 이미지·부가가치 향상, 한국기업의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국시장(中) 공략 등 對韓투자 메리트에 대한 對中 세일즈 강화

- 한국은 세계경제의 56.3%와 자유무역을 시행중이며 특히 최근 2~3년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 움직임이 보이는 미국(2012.3), EU(2011.7)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 FTA가 발효되어 한국 진출 중국기업에 효용이 큰 점을 적극 알릴 필요

**한국 진출 중국기업의 한·미, 한·EU FTA 활용**

- (對韓투자의) 새로운 모델
  - A사(고양시 소재)는 한국 현지 에어컨기업을 인수,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한국에서 조립해 해외시장에 수출. 한국은 EU,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세계의 60% 지역과 FTA를 실시 중으로 글로벌시장의 무역중추가 될 수 있음. 이를 활용해 중국기업은 수출 시 쿼타 또는 무역반덤핑제 등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한국투자는 기회의 시간입니다(投資韩国, 机会正当时)”, 중국경영보, 2013.9.

-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기술·노하우 또는 ‘korea 브랜드’를 확보해 다시 자국시장(中)을 타게팅하는 투자모델을 적극 세일즈할 필요
- 특히 한중 FTA가 높은 수준으로 체결되어 상호 투자, 교역기반이 강화될수록 위 성격의 투자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의 기술·노하우·브랜드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자국시장 타게팅**

- (對韓투자의) 새로운 모델
- 2012년, 중국 디쌍(迪尚)그룹은 AVISTA 지분 36.9%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됨
- 디쌍그룹은 중국(디쌍그룹)의 자금과 한국(아비스타)의 브랜드, 기술, 개발 역량을 결합해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채택
- \* 아비스타, 2013년 1월, “2013 a New Beginning for Dishang & Avista” 중국 사업 비전 선포. 2020년까지 중국매출 1조 원, 중국 탑10 패션기업을 목표로 제시

출처 : 상동

- 중국자본의 對韓투자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중국자본에 대한 일반인식이 보다 긍정적, 개방적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
- 중국자본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정부기관 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통해 對韓투자의 불확실성 낮춤으로써, 결심한 투자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사업하는 환경을 조성
- 중국자본의 국내투자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는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등 긍정적 사례를 발굴, 홍보해 중국자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중국기업의 한국기업 M&A 상호 win-win 사례**

※ 사례선정 :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헤리티지 재단), 중국의 1억 달러 이상 對韓투자 사례(기술 부문)

- [게임업계] 中 2위 산다 - 韓 아이덴티티 간 협력 및 M&A 시너지
- 산다는 2008년 아이덴티티게임즈(2007년 설립)가 ‘드래곤네스트’(첫 번째 개발작) 개발 단계부터 100억 원을 투자했고 同게임의 중국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등, 아이덴티티게임즈 창립 초기부터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옴
- 2010년 9월 中 산다는 9,500만 달러에 아이덴티티 지분 100%를 인수. 인수 이후에도 아이덴티티의 독립경영권과 개발권을 보장하기로 합의.
- \* 아이덴티티게임즈 내부 M&A 평가 : 회사대표, “향후 양사는 종합 퍼블리셔(中)와 개발사(韓)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회사관계자, “글로벌 네트워크가 좋은 산다가 해외사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것
- 산다 인수전 ‘드래곤네스트’의 퍼블리싱 계약국가가 한·중·일·대만·홍콩이었는데 인수 후 2011~2012년 태국·싱가포르·말련·북미·러시아/CIS·유럽 다양한 국가·대륙으로 급격히 확대. 동기간 매출은 261.9억 원(2010년)에서 531.1억으로 급성장(2012년)

출처 : 2010.9. 중앙일보, 2012.10. 디지털타임즈 기사 발췌, 아이덴티티게임즈 공식사이트 자료 인용

- 인허가, 면허 등 시장진입을 결정짓는 제도 운영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해외자본참여가 국내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 고용유연성 향상 등 노동시장 효율성을 개선
  - 노조는 ‘선파업 후교섭’의 후진적 교섭관행을 개선하고 사용자는 노조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경영투명화, 기업여건·실적·전망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신뢰 회복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쓸 필요



